

제목 : 교회와 국가

본문 : 롬 13:1-7

시작찬송가 : 246(새208), 482(새364), 511(새314)

현금찬송가 : 245(새210), 248(새550), 512(새315)

성경은 한 국가의 흥망성쇠도 모두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증언합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공통적으로 국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의와 자비와 진리를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국가를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삶을 보호해 주고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을 도와주는 기관으로 여겨야 합니다. 즉 협력과 이해의 대상이 국가이며, 결코 적대적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바울 사도의 지론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윤리적 등불과 양심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1. 성경의 국가에 대한 개념

① 성경은 이스라엘, 애굽, 바벨론은 물론 약소국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단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국가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세워진 것이라는 인본주의적 국가관을 시정해야 합니다.

행 17:26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② 성경은 국가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국가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의 명령에 순종하여, 국민에게 주어진 의무를 마땅히 감당해야 합니다.

롬 13:1-2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自取)하리라

2. 국가에 대한 성도의 자세

① 성도는 국가와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가 평안할 때 성도의 신앙생활도 평안해 집니다.

딤후 2:1-2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② 성도는 국가의 법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로마의 십자가 사형법에 항거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로마법을 따르셨던 것처럼, 성도도 ‘주를 위하여’ 국가의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벧전 2:13-14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③ 성도는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투표, 납세, 국방처럼 나라를 위해 감당해야 할 의무를 솔선수범하여 감당하고, 국가의 평화와 자유를 위하여 협력해야 합니다.

왕하 23:35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저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국민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녹봉하였더라

④ 성도는 진리 안에서 애국해야 합니다. 진리를 떠난 애국은 자칫 ‘국수주의’ 나 ‘혁명주의’ 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소망과 사랑과 복음의 진리 안에서 국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행 4:18-19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3. 이상적인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① 국가는 정치적 구조 자체로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안에 교회를 간직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교회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진리를 실천에 옮기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② 교회는 국가의 등불이요 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는 대개 그 속성상 자기 자신을 옳바로 비판할 수 없습니다. 옳바른 국가 정치는 그 정치적인 손익을 초월하여 윤리와 종교에게 비판과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는 국가의 소금이요 빛이 되어야 합니다.

※ 여호와 하나님은 통치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 된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일보다도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2절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까?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차이나 반도의 태국,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모두가 불교국가입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에는 아직도 왕이 있습니다. 그 왕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강력하게 법으로 막고 있습니다. 아시아 여러나라의 왕들과 유럽의 왕들을 비교해 보면 아시아의 왕들은 자신들이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다가 나라를 비참한 상태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빅토리아 여왕 같은 유럽의 왕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왕으로 온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니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통치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의 길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죄인된 우리 인간은 모두 길이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요나는 B.C 760년경 예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북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당시 세계를 통치하던 나라는 앗수르입니다. 앗수르는 강대국이지만 하나님 앞에 죄악도 그만큼 컸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언제나 죄악도 관영합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많은 만큼 죄도 힘 있게 확대되고 발전해 가는 것을 인류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앗수르나 어떤 민족이든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민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죄악이 하늘에 상달하였으니 회개하여 구원을 얻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그 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이로 인해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안 가고 불순종의 길, 죄악의 길로 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앗수르도 심판하시지만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나 하나님의 자녀들도 풍랑을 통하여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환난이 일어나는 것을 수습하는 길은 제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풍랑을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회개함으로 인해 풍랑이 멈추었습니다. 요나가 손을 들며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였을 때 풍랑은 수습되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앗수르가 회개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며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민족이나 가정이나 어느 누구 할 것없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 회개하고 바로 살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의 성전에 나와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풍랑도 수습이 되고 다시 힘있게 전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당회장 목사님 말씀 中)

오늘의 한마디 :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금주의 기도제목

- 1. 당회장 목사님의 목회사역을 위하여, 당회장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 2. 성전 건축을 위하여,
- 3.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 4. 공동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 지도록,